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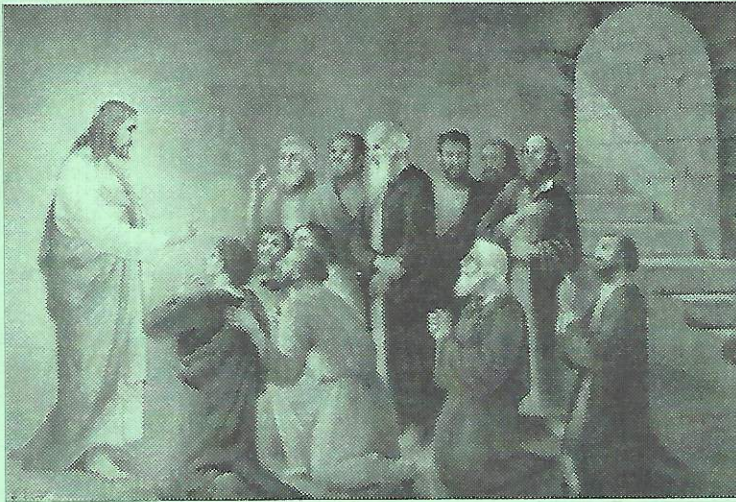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5주일

제35권 33호(나해) 2015년 7월12일

[묵상]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파견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파견의 의미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제자들의 삶을 지탱시키고,
삶의 모습을 정돈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정돈된 자만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이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제자들을 파견하신 그때,
그 당시의 파견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진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들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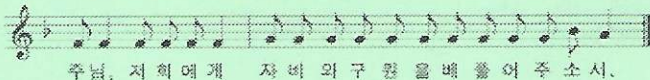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승익 헤로
	(생)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이용식 베드로,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김상진 토마스, 이종수 마틴, 고준희 제임스, 김희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율리안나, 박토마스, 윤귀출 마리아, 구연석, 전시웅 요한, 김기준 안젤라, 이용수 요셉, 연옥 영혼, 박수경 스테파노, 정운 요셉
	(생)이태옥 아가다 & 이윤옥 마리아 & 박현주 카타리나, 장영진 안토니오, 김영란 율리아, 정우석 루카, 박지상 아우구스틴 & 엘리야나 & 조이, 박종민 스테파노 & 전선미 스테파니아,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강동욱 세레자 요한 &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아모스(Amos) 7,12-15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
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
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
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 가시리라.◎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1,3-14<또는 1,3-10>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음 마르코(Mark) 6,7-13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01	182	231
봉헌	409	270	261
성체	376	299	301
파견	378	215	215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보통의 삼촌과 조카 사이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
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할 때부터 항상 롯과 함께였습
니다.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도 롯이 동행했
습니다. 아브라함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셈입니다. 아브라함
에게 롯은 자식 못지않은 조카였을 것입니다. 롯은 자신을
거두어주는 삼촌 아브라함이 친아버지처럼 고마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자지간처럼 가깝게 지내던 아브라함
과 롯 사이에 재물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12,1-5, 창세기 13,1-7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 사이에 싸움이 잦아집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분쟁이 반복되면 분가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
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힘을 합해야만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과거의 가난했던 시절에는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
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부자가 된 다음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와 결별하려고 작
정합니다. 아무리 자기 품에 두려 노력해도 롯이 더는 자신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
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13,8-18

롯이 보기에 요르단 분지는 소알까지 물이 넘쳐하여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 초아르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
이 더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소돔은 실제로 죄가 범람한 곳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실제로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
돔 땅은 하느님의 진노로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아 불살라
졌습니다. 소돔 땅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는 자신의 재물
과 땅이 못내 아쉬워 뒤를 돌아보다 그만 화를 당합니다.
롯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 자신이 소유하려 했던 모든 것
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롯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
고 그 결과 실패와 고통의 길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19,1-29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중요한 것은 잊고 그저 겉데기에 집착하면서 살
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속의 눈이 아니라 영
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을 바라보니, 초아르
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이 넘쳐하여 마치 주님의 동
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
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창세 13,10)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 ()이 되어
버렸다.” (창세 19,26)

제자들의 현장실습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 하면서 남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과신하거나, 책임감이 지나쳐 남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셨고 만민구원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도 지니셨지만, 독불장군은 아니셨습니다. 활동 초기부터 제자들을 뽑아 양성하여 당신의 일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뽑아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하십니다. 장차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마르 3,14-15)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행동하고 침식을 같이하며 곁에서 스승을 보고 배웁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어 둘씩 짝지어 파견하십니다. 그들은 스승처럼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악령과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본격적인 복음 선포는 성령강림 후에 시작되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에 제자들을 현장에 파견하시어 실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실습’에 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우선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길 떠나는 데에 필요한 식량, 여행 보따리, 전대,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식주 문제는 하느님께 맡기고 복음 선포에만 집중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선포의 현장에 가거든 진득하게 한 집에만 머물러 있다가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좀 더 좋은 대접 받으려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선포의 대가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전해야 하는 복음보다 ‘젓밥’에, 잇속에 마음이 있다면 복음 선포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 당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처럼(제1독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종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

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 마을을 떠날 때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림으로써 분명하게 결별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겸허해야 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참된 빛과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어둠과 불행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그분의 풍성한 은총을 받고 삽니다.(제2독서)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파견되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지닙니다. 복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 속에서, 구원의 말씀이 더욱 잘 전해지도록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 손희송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식사 한 번 같이 하시죠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게 일이었던 시절에
밥 한 그릇은 끼니였지만
지금은 너무 먹어 병이 생기는 때.
그러니 식사 한 번 하자는 건
당신이 싫지 않다는 것이고 관심 있단 뜻이며
관계의 지속을 바란다는 속내 또한 아니겠나.
어떤 이들에게는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배고픈 시절보다 더 절실한 게 그래서가 아닐까.

- 이영 아네스 -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스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스	이호미 엘리사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김금자 테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남가주 여성 제39차 푸르실료 수료자 환영 울뜨레아

- 일시 : 오늘 주일(12일) 오후 4시 강당
- 수료자 : 김영란 울리아
- 본당 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남해나 분다 ☎(310)384-3289

◆ 주일학교 찬양의 밤 행사(Praise Night)

- 일시 : 7월17일(금) 오후 5시 성당~8:30
- 참석대상 : 남가주 각성당 샌디에고 고등부 신앙대회 참가자 및 관심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 어르신 교우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격려해주시오.

◆요셉회 7월모임

- 일시 : 7월19일(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 천교장
- 당일 모임 후 가족과 함께 음식 나누고자 하오니 부부참석 환영합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2015년 제28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

- 주제 :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것이다.(루카 10:28)
- 일시 : 7월25일(토)오전 8시~오후 10시, 7월26(주일), 오전 8시~오후 6시,
- 강사 : 황창연 신부(성필립보 생테마을 관장), 윤민재 신부(용인대리구 성령지도신부), 김경희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1301 Avenida Cesar Chavez Monterey Park, CA 91754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준비물: 도시락, 물

- 문의 : 장아네스 ☎ (310) 780-0369

◆남가주 남성 /여성 영어 푸르실료 교육

- 일시 : 남성 7월 23일(목) ~26일 (주일) 여성 8월 27일(목) ~30일 (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Reatreat House
- 신청마감 :남성 7월 17일 여성 8월 14일
- 지도 : 이유진 유스티노 신부
- 자격 : 21세이상 봉사정신이 투철한 가톨릭 신자
- 문의 : kccmsc@gmail.com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중,고등부
- 자격 : 영어가능한 남녀교우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한국학교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중입니다

- 기간 :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 시간 : 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모집

- 2015-16년도 백삼위 한국 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교우 분을 모집합니다.
- 대상 : 초급 과정 교사, 보조교사
- 문의 : 최이원 ☎ (213)700-9399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12일(주일) * 토동 2반 : 짜장밥 (\$3)
- 7월19일(주일) *토서2반: 북어국(\$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구자운 국세찬 금영도 김기정 김 명 김상규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옥찬 김일선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 준 민기남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배태임 송영미 송재훈 안민수 오세원 우영희 유선식 이경태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제옥 전정일 정정현 정충로 주용순 최기남 최미열 최이원 최태훈 한장환 합계:\$4,575	구자운 국세찬 금영도 김기정 김 명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 준 민기남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안민수 오세원 유선식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정정현 정충로 주용순 최기남 최미열 최이원 최태훈 한장환 합계 : 2,735 후보광고 : \$960
주일미사 헌금 : \$2,446 2차헌금 : \$430	성물판매\$533.50-성물 구입금 \$193=이익금\$340.50

◆제16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

- 주최: 미주한국학교연합회
- 등록마감: 7월 14일
- 장 소: A과정: 8월 11일(화)~15일(토) (5일간)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CA 90005, USA
B과정: 8월 15일(토) 오전 9시~오후 6시30분
학술대회는 전 과정 수료증이 발급되며, 특히 A 과정은
신임교사나 한국학교 교사에 관심이 많은 분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 참가자 등록비 지원)

◆미주한국학교연합회1회 차세대 세미나

- 날짜: 2015년 8월 15일(토) 9a.m~8:00p.m 예정.
- 장소: Red Lion Hotel, Anaheim
- 등록마감: 7월 14일
- 참여 대상: 현재 한글학교 보조교사(9학년 이상)와
한글학교 졸업생 중 한글학교 교사에 관심 있는 사람
(전 과정 참석 시 수료증 발급)

◆남가주 청년 성령 기도회

- 청년들을 위한 기초성령세미나
“나를 사랑하느나”(요한 21,17)
- 일 시: 7월 10일(금)오후5시 ~7월 12일(주일)오후 4시
 - 대상: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
 - 피정지도: Fr. Joe Kim
 - 참가비: \$150
 - 장소: Divine Word Retreat Center, Riverside
 - 문의: 김모니카 (310)999-1142
최루이스 (714)392-1732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7월 17일(금) ~7월 19일(일)
- 대상: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Peter Koo (213)605-2817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피정

- 일 시: 7월 31일(금) ~8월 2일(주일)
- 지도신부: 하태수신부(예수회)
- 참가비: \$270(독방, 숙식제공)
- 신청마감: 7월 17일, 선착순18명
- 장소: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문의: 정도로테아(323)937-2083, (818) 321-9505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차 장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태옥 아가다 991-4838 7/14(화)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이근테 세르지오 871-0787 7/25(토) 오후 5시 토런스파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7/17(금) 오후 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김주량 요한 490-9662 7/11(토) 오후 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진영태 요한 909-557-7490 7/11(토) 오후 6시 중국식당
	3	박명순 안나 968-7600	정정현 베네딕다 995-6342 7/7(화)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정후 아네스 625-3312 7/19 (일) 12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34-6923 7/14(화) 오전11시 강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김유미 사비나 738-5305 7/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404-1607	황지영 안젤라 938-8089 7/19(일) 오전 11시 Delthone Park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혜영 아네스 749-3151 7/11(토) 오후 7시
	2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정훈모 바오로 415-9008 7/10 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재준 요한 793-6157 7/18(토)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정지영 프란치스코 503-927-0770 7/26(일) 오후 3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7/14(화) 오전10시30분Hesse Park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회장단회의	오후1시
-------	------

위대한 항해

[햇별 한 줌]

얼마 전 1,3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감동의 눈물바다로 만든 영화 '국제시장'의 첫 장면에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 등장합니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에는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철수 배인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가 정박 해 있었습니다.

정원 60명에 승조원을 제외하고 남은 자리는 고작 13명뿐. 부두에 떠를 지어 있는 피난민들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이 배의 레너드 라루 선장은 배에 실려 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16시간의 긴 탑승 끝에 정원의 230배나 되는 무려 14,000명을 태운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는 마침내 3일간의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해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12월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로 세계 기네스 북에 등재된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의 라루 선장은 그 후 4년 뒤 베네딕토 수도회에 입회하여 마리너스 수사로서 미국의 뉴튼 성 바오로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도생활에 정진하다가 2001년 10월 14일 87세의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40여 년간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동료 수사들에게 내색조차 하지 않아 그런 기적과도 같은 선행을 행한 줄도 모를 정도로 겸손했다는 마리너스 수사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해 크리스마스에 항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가톨릭 굿 뉴스

사도들은 누구일까?

[교리상식]

보통 사도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어로 '파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예수님을 굳게 믿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견하셨습니다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가톨릭출판사

[기도묵상]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지는 많은 말을 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닌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

수호천사가 되고 싶다

[문화의 복음자리]

십 대 아이들은 꿈꾼다. 한 손엔 스마트폰 들고 다른 한 손엔 레이저 칼 들고서 하늘로 치솟고 싶다. 땅 위의 학원들을 다 없애고, 불량 성인들을 다 물리치는 붉은 망토 휘날리는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이십 대 청년들은 꿈꾼다. 한 손엔 노트북 들고 다른 한 손엔 스펙 자격증 들고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블랙홀들을 물리치고 분배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사회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음모하는 전사들로 무장하기를 꿈꾼다. 그러나 부모들은 수호 천사가 되고 싶다. 아이들이 하늘을 날다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 증오 때문에 평화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 과감하게 일어나 아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고 싶다. 부모이기에 아이들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수호천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한 채 스스로 냉혹한 노동 시장에서 채용과 임금에 묶여 한숨만 내쉬고 있다. 머릿속은 하얗고, 손발엔 쥐가 내릴 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양 한숨만 내쉬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부모가 아이들 문화를 알게 되면, 청년들의 문화를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수호천사가 되는 일도 아주 간단해 질 텐데. 사실 아이들의 문화 그 안에는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어 물질을 잘 틀어만 주어도 그들은 천사이고, 희망이고, 미래인 것을 알 수 있기에 말이다. 부모가 먼저 문화의 차이를 스스로 알아챌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래서 생각한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아이들 대신에, 청년들 대신에 하늘을 날아다니며 없애야 할 것을 제거하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어 놓으면 될 것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호천사가 되어 있을 것을!

◆조옥중 신부 / 로사리오의 집

귀여운 유머

- 어떤 집에 손님들이 저녁식사에 초대 되었다. 저녁식사 준비가 되고 모두들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집 주인은 여섯 살 짜리 딸에게 식사 기도를 해 보라고 시켰다.
딸 :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엄마 : 엄마가 하던대로 하면 되..
그러자 딸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딸 : 하느님, 세상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 했나요?
- 아빠와 어린 아들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죽어 말라 있는 게를 보았다.
아들 : 아빠, 이건 왜 이렇게 된거야?
아빠 : 응...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거야.
아들 : 그럼 하느님이 여기다 도로 갖다 버린거야?